

# 네팔에서 '파드마삼바바' 불상 직접 이운해 모셔



2009년 문수사 봉축행사에서 네팔 이주민들이 관복을 하고 있다.

## 네팔 이주민 법당 동두천 '용수사'

"보살님, 이것 좀 도와줘봐."  
"이렇게 만들고 보니 용수사에 부처님 자비가 더 가득할 것 같네."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동두천 용수사에 능인선원 보살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15명의 능인선원 보살들이 4월 16일 용수사를 찾아 연꽃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네팔은 한국과 달리 법당에 연꽃을 매달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찰인 만큼 특별히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능인선원의 후원으로 연꽃을 매달기로 했다. 보살들이 만든 연꽃은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법당 천장에 설치했다. 네팔 이주노동자들과 용수사는 4월에는 별도의 정기법회 없이 연꽃 등을 설치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부처님께 기도

를 올렸다. 용수사 주지 우르겐 라마는 "능인선원 보살님들의 도움으로 연꽃을 만들게 됐다. 먼 곳까지 찾아와서 용수사와 네팔 사람들을 위해 애써주신 마음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용수사'는 네팔 이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한국 땅에 전하고 있다. 용수사는 한국YBA(총재 지광, 능인선원 원장)의 도움으로 2008년 5월 동두천에 문을 열었다. 동두천과 의정부 일대에는 1000여 명의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에게 용수사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타국 생활에서의 어려움과 지친 마음을 부처님께 기도 올릴 수 있는 고향과 같은 곳이다. 우르겐 라마는 2004년 한국에 네팔만 다리를 알리기 위해 방문했다가 능인선원과 인연을 맺으면서 이주민들을 돕게 됐다. 타국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보며 그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을 느낀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의료 및 대사관 업무 지원은 용수사와 우르겐 라마의 주된 활동 중 하나다. 작업 중 갑자기 다치거나

몸이 아플 경우 이주 노동자들이 병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불법체류 노동자인 경우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럴 때 우르겐 라마는 병원에 동행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몸이 아프거나 약력 고용주를 만나서 월급을 제 때 지급받지 못 하는 경우가 우르겐 라마나 네팔 이주민을 가장 힘들게 한다. 용수사 법당에 놓인 '파드마삼바바' 불상은 네팔에서 직접 이운해 온 것이다. 티베트 불교의 전통을 따르는 네팔 법당에서는 불상을 모실 때 관세음보살과 파드마삼바바를 좌우 협시불로 모신다. 용수사도 이런 전통을 따른 것이다. 네팔 이주민들은 법당 개원 때부터 파드마삼바바를 모시고 싶었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 미루다가 2009년에야 모실 수 있었다. 용수사는 이를 위해 네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불사금을 모으고 관심 있는 한국 불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용수사와 우르겐 라마는 한국 속에 네팔 불교를 정착시켜 이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신심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르겐 라마는 매일 아침 10시면 법당에서 혼자 기도를 올린다. 법당 한 쪽에 마

련된 공양간에서 직접 밥과 반찬을 만들어서 식사를 해결한다. 한국과 달리 공양주 보살이 없어 스님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우르겐 라마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낯선 풍경 중 하나가 절에서 음식을 만드는 보살이었다. 네팔에서는 월급을 주고 1명 정도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는데, 주로 스님들이 음식을 만들고 청소도 직접 한다"고 설명했다. 네팔은 또 집에 작은 법당을 꾸미고 스님을 집으로 모셔와 법회나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절에는 특별한 날이나 큰 행사 때만 찾는다. 절에서 모든 행사가 열리고 때가 되면 법당을 찾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법회도 한국처럼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진행되지 않는다. 한 번 법회가 시작되면 기도가 길어서 네팔 사람들은 중간 중간 전화를 받거나 개인적인 일을 보기도 한다. 그러나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네팔 사람들이 이런 전통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개인적으로 시간이 날 때

면 용수사를 찾아 기도를 올린다. 일요일에 열리는 정기 법회도 시간을 정해두고 1~2시간 안에 진행된다. 전통적으로 네팔에서는 법당에 들어갈 때 양말을 벗고 들어간다. 그러나 최근에는 네팔에서도 법당에 양말을 신고 들어간다. 남방불교의 영향으로 네팔에서는 불자들이 육류를 공양으로 올린다. 스님들도 거부감 없이 먹는다. 우르겐 라마는 "많은 양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이 때 공양되는 육류는 야채에 섞인 극히 소량일 뿐이다. 평소에는 공양으로 육류를 올린던 불자들도 부처님 오신날 등 특별한 날에는 올리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 대해 우르겐 라마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네팔과 한국 모두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르겐 라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전통을 벗어나 한국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 그 속에서 네팔 전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부처님의 법은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스님이 부르는 노래 들으며 명상수련



학교음보대사로 활동중인 영카우(왼쪽) 학생

## 유학생할 버팀목 동국대 정각원 중국 법회

2010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중인 중국인 유학생 수는 2만 명에 달한다. 중국 유학생들이 모이는 법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 법당에서는 스님이 직접 중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불경을 외는 소리외도 비슷했지만 틀림없는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던 스님은 한국보리선원의 선원장 각

성 스님이다. 중국에서 온 스님은 정각원에서 특별한 음식의 노래를 부르며 학생들의 명상을 지도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스님의 중국어 노래와 어우러진 법문을 좋아했다. 스님의 불러주는 노래 중 한 곡은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노래로 고향에 온 듯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한다. 동국대 정각원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법회가 매달 마지막 화요일에 열린다. 동국대 학생들 뿐 아니라 중앙대 등 다른 학교에 온 중국 유학생들도 참여한다. 국제통상학과 왕가우 학생(사진·왼쪽)은 "한국은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모든 절에서 크게 개최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색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동국대 학생 모델로 선발돼 활동 중이며 중국유학생학생회 회장이기도하다. 이어, 왕 학생은 "보람찬 유학생활동에 정각원 법회가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길림성에서 왔다는 한 학생은 법회 진행에 일손을 거들고자 왔다. "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종교잖아요. 봉사활동도 하고 중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싶습니다"고 했다. 그는 불자가 아니라며 수줍어했지만 불교를 통해 마음공부를 하려는 모습이 여느 불자 못지않았다. 중국 법당은 바닥이 돌로 돼있고 신발을 신도록 하고있다. 국어국문학과 비즈루 학생은 "안과 밖의 구분이 분명한 한국은 정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며 사찰예절이 중국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대부분 산속에 절에 있고 일요일 법회도 없어 학생들은 절에 자주 가지 못한다. 절의 수도 한국에 비하면 구(區)마다 하나 있는 정도이다. 학생들은 "한국에서는 절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 신기했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들은 사찰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가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정보통신학과 순영환 학생은 "5월 7일 연등 축제에 중국유학생들도 함께 참가했다"며 즐거워했다. 한국에서 만난 불교가 이들을 평생 '마음공부'로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 천진영 기자

# "공양 받은 음식은 고기도 소중합니다"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스님에게 공양을 올린 후 축원 기도 하고 있다.

## '설날' 법회 역동 미얀마 법당

'미얀마 인이 된다는 것은 곧 불교도가 된다'는 말이 있다. 미얀마인들의 생활에서 불교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이야기 할 수 없다. 4월 17일(음 3.15)은 미얀마 설날이다.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경기도 광주 역동 미얀마 이주민 쉼터에서 미얀마선원 산디마 스님을 초청해 설날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앞서 사람들은 스님에게 점심공양을 올렸다. 스님의 가사와 같은 붉은색 테이불보가 덮인 테이

불 양 끝을 잡고 이주민과 스님들은 함께 기도를 올렸다. 스님은 공양물인 신도들이 보시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함께 기도문을 읽는다. 만약 이러한 의식 없이 스님이 공양물을 먹거나 사용한다면 도둑질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미얀마 사람들은 스님에게 닭고기, 새우 등의 고기가 섞인 메뉴를 드렸다. 스님은 고기라고 해서 먹지 않거나 거절하지 않았다. 스님의 육식에 대해 산디마 스님은 "육식을 금하는 계율은 없다. 공양으로 받은 고기를 먹을 때에는 모든 것에 자비를 보내며 맛있게 먹는다"고 말했다. 미얀마에서는 절대 스님과 함께 공양할 수 없다. 대신 스님이 공양을 하는 동안 스님의 공양을 돕는 것을 최고의 공덕으로 여긴다. 미얀마인들은 '스님 곁에만 있어도 선업을 받았고 배가 부르다'고 생각한다. 불자들은 스님 앞에서는 항상 무릎을

다소곳이 옆으로 포개고 앉는데, 이 자세는 스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자세이면서 불법을 배울 때의 자세라고 한다. 미얀마에서는 설날과 같이 특별한 날에는 사찰에 가거나,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청한다. 법문을 청하거나 가사공양, 음식공양을 하는 모든 것은 재가자가 먼저 스님에게 청했을 때만 할 수 있다. 회향시간에는 기도문에 맞춰 신도들이 물 컵에 담긴 물을 큰 대접에 조금씩 따라 내렸다. 산디마 스님은 "물이 공덕을 주듯 선업을 쌓아 삼라만상 모든 존재를 위한 공덕을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미얀마 법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인 것 중에 하나는 '물'이다. 미얀마에서 물은 '자비의 물'로 불리며 신성시 된다. 물이 신구의(身口意) 삼업을 청정히 하고, 죄를 씻어내어 나쁜 영혼을 빠져나가게 한다는 의미로 시작한 것이 설날을 앞두고 진행되는 미얀마의 물축제 '띤잔(Thingyan)'이다. 미얀마에서도 일반 재가에게 수행법을 지도한다. 산디마 스님은 "수행에는 어떤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언 기자

佛紀 2555年 辛卯年 Buddha's birthday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승강 장치인 찬덕불교가 신개념 기술로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강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강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도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